**Stage 1 – Kipper Storybooks**
**The Library**

책을 읽기 전

- 제목을 읽고 표지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며 질문

Who do you think needs a haircut?

(누가 머리를 잘라야 한다고 생각하니?)

Who cuts your hair?

(너의 머리는 누가 잘라주지?)

Do you like getting your hair cut?

(머리 자르는 것을 좋아해?)

관찰

책이나 내용에 대해 정확한 용어(어구, 표현 등..)를 사용하고 있는지 관찰

- 책을 바르게 잡고 읽고 있는지 관찰

- 책을 펴고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나가고 있는지 관찰

< 본문연구 >

- 2~3페이지를 펴고 질문

Can you tell me the name of the hairdresser's where Kipper goes?

(키퍼가 가는 미용실의 이름을 말해줄 수 있니?)

Can you point to the word 'shampoo' on a bottle in the window?

(창가에 진열된 여러 병들 중 '샴푸'라고 쓰여있는 단어를 가리킬 수 있니?

< 문장연구 >

목표

단어들이 뜻이 통하도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되어야 하며 같은 방향으로 읽혀져야 합니다.

- 칠판에 Kipper got a haircut. 이라고 쓴 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어를 짚으며 아이들이 큰 소리로 문장을 읽게 하세요. 그러고 난 후 키퍼의 이름 대신 클래스에 있는 몇몇 학생들의 이름을 넣어 읽게 해보세요.

관찰

선생님이 단어들을 짚을 때 바르게 따라 읽는지 체크해 주세요.

< 단어연구 >

목표

의미가 서로 통하는 단어들과 특정한 주제와 연관된 단어들의 묶음을 만들어 보세요.

- 6~7페이지를 펴고 .h.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게 합니다.

(hair dresser, hair, hairbrush, hairspray).

- 이런 단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을 알아챌 수 있나요? (모두 'hair'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 말하기와 듣기 Activity>

목표

역할극을 통해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 둘씩 짝을 짓게 하세요. 한 명은 미용사가 되고 나머지는 손님이 됩니다.

손님 역할을 맡은 학생은 어떤 머리스타일을 원하는지 설명하고 미용사는 손님이 어떤 머리스타일을 원하는지 앉아내기 위해 질문들을 합니다.

- 머리카락 이외에 우리 신체 중 어느 부위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잘라서 다듬어야 하는지 의논해 봅니다.

Story telling by extended stories?

- 더 길고 자세한 스토리 버전으로, 좀 더 높은 레벨의 수업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언어 노출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이해력과 상상력을 증진 시켜 줍니다.

♠ 이렇게 읽어주세요!

Stage 1. Biff and Chip Stories는 텍스트가 없는 그림책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그림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스토리 텔링 해주세요. 페이지마다 읽은 내용에 관한 사실과 의견을 묻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ver Note**

One day Dad said to Mum, 'Kipper's hair is getting really long again. It's time he had it cut.' 'Oh dear!' groaned Mum. 'I don't think I want to know about this. Ask me to clean a crocodile's teeth, or cut a tiger's toenails, but don't ask me to cut Kipper's hair.' 'Surely it's not that difficult a job,' said Dad. 'Difficult? Difficult?' exclaimed Mum. 'I'd rather polish a python or rinse a rhinoceros!' 'Now who's making a fuss?' said Dad. 'I know what,' said Mum, giving Dad a funny, knowing sort of smile. 'You cut Kipper's hair. After all, I'm going out this afternoon, so it can be a nice little job for you.' 'Well... um... er... oh'

어느 날 아빠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키퍼의 머리가 다시 길게 자랐어. 자를 때가 된 것 같아.' '오~ 여보, 난 싫어요. 차라리 나에게 악어의 이를 닦으라거나 호랑이의 발톱을 자르라고 해요. 나에게 키퍼의 머리를 자르라고는 하지 마요.' 하고 엄마는 불평했어요. '분명히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아빠가 말했어요.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난 차라리 뱀을 닦거나 코뿔소를 씻어주겠어요!'라고 엄마가 외쳤어요. '지금 흥분하는 사람이 누구지?' 아빠가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엄마는 장난기 있는 웃음을 띠고 말했어요. '당신이 키퍼의 머리를 잘라요. 난 오늘 오후에 외출해야 하니까, 당신에겐 아주 좋은 '간단한' 일이 되겠어요' '음... 어... 글쎄... 그렇다면 좋아. 난 키퍼가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리라 생각하지 안거든. 그는 올바른 길로 다루어져야 할 뿐이야.' 아빠가 말했답니다.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o cuts your hair?

누가 너의 머리카락을 잘라주지?

What's the worst thing about having a haircut?

머리카락을 자를 때 가장 힘든 일이 뭐니?

Do you make a fuss?

여러분은 머리카락을 자를 때 야단스럽게 구니?

<단어 앉기>

Hair: 털, 머리털, 머리카락

Cut: 자르다, 베다

Fuss: 야단법석, 혼란, 호들갑

Difficult: 곤란한, 어려운

Page 1

As soon as Mum had gone, Dad took Kipper up the bathroom and started to comb his hair.

엄마가 나가자마자, 아빠는 키퍼를 욕실로 데리고 가서 키퍼의 머리를 빗질하기 시작했어요.

'Do you know,' he said, in his jolliest voice.

'너 알고 있니?'아빠는 놀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I heard of a little boy who made so much fuss when he had his hair cut, that nobody was ever able to cut it.

'난 어떤 소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이는 머리를 자를 때 누구도 자를 수 없을 만큼 야단스럽게 군다고 하더라고. '

It grew so long that the boy couldn't see where he was going, and he kept bumping into doors and crashing into lamp posts and tripping over the cat.

'머리가 너무 길어서 그가 가는 길이 볼 수도 없을 정도라서, 그는 문에도 부딪치고 전등에도 부딪치고, 고양이에 걸려 넘어진다더라. '

I can't imagine you'd be as silly as that, Kipper.'

나는 네가 그 아이처럼 어리석지 안으리라 생각한단다, 키퍼야.

'Ooooooooch, ouch!' cried Kipper.

'오오오오오, 아이쿠!' 키퍼는 소리쳤어요.

'You're hurting. Mum never hurts like that when she combs my hair.'

'아빠는 아프게 해요. 엄마는 내 머릴 빗질해 줄 때 그렇게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I thought we could wash your hair and then I can give it a little cut,' said Dad.

'난 너의 머리를 감긴 다음 조금 잘라야겠다고 생각한단다.'아빠가 말했어요.

'Oooooh, ow!' wailed Kipper, wriggling and squirming away.

'우우우우웅!' 키퍼는 몸부림치고 꿈틀거리면서, 울부짖었어요.

'I don't want my hair cut.'

'난 머리 자르는 거 싫어요.'

'This is going to be trickier than I thought,' said Dad. 'But I've just had a brilliant idea!'

'생각보다 더 까다롭겠는걸. 그러나 내게 번뜩이는 생각이 있지!' 아빠는 말했어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Can you guess what Dad's brilliant idea is?

아빠의 번뜩이는 생각은 무엇일까?

Why do we have to have haircuts?

우리는 왜 머리카락을 잘라야 할까?

<단어 알기>

Comb: 빗질하다

Hurt: 다치게 하다, 아프게 하다

'Off you go then, Kipper,' said Dad. 'You choose some books for yourself, and I'll go and choose some for Mum and me.'

'그럼 키퍼야, 가서 너의 책을 골라라. 난 엄마와 내가 읽을 책을 고를 테니.' 아빠가 말했어요.

Kipper couldn't wait to browse through the shelves looking at all the exciting books in the children's corner.

키퍼는 어린이용 도서 선반에 있는 흥미진진한 책들을 훑어보는 걸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Wow!' said Kipper to himself. 'There are loads and loads of books to choose from.'

'우와! 고를 책이 가득 이야!'

The children's corner had a carpet on the floor, and it had small, comfortable plastic chairs.

'어린이용 도서'에는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었고, 작고 편안한 플라스틱 의자가 있었어요.

The children could either sit in the chairs or lie on the carpet and have a good look at the books before deciding which ones to take home.

아이들은 어떤 책을 집으로 가져갈지 결정하기 전에 의자에 앉거나 카펫에 누워 책을 볼 수가 있었죠.

To Kipper's delight, the reading corner wasn't very busy.

'There's plenty of room today,' he said to himself.

키퍼가 기쁘게도, 그곳은 사람이 많지 안았어요.

'오늘은 자리가 많다.' 그는 중얼거렸어요.

'I can spread out, like I do at home.'

'난 집에서처럼 쭉 펼쳐놓을 수 있어.'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y is it a good idea to have chairs in a reading corner?

'읽기 공간'에 의자가 있는 건 왜 좋은 생각일까?

What do you think he was going to do?

키퍼가 다음에 뭘 할 것 같지?

<단어 알기>

Choose: 고르다, 선택하다

Chair: 의자

Page 4-5

Soon Kipper was busy looking at the books on the shelves.

곧 키퍼는 선반에 있는 책을 보느라 바빠졌어요.

Then he took every single book he liked the look of and put it in a pile beside one of the chairs.

그는 그가 보기 좋은 모든 책들을 꺼내와 의자 옆에 쌓아 놨어요.

Then he sat down and began looking at them. One by one.

그리고 앉아서 그 책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지요.

Now you can see what he meant by 'spreading out'.

이제 '쭉 펼쳐놓는' 다는 의미를 앉겠죠?

Soon, the floor all round him was covered in books.

곧, 키퍼 주변 바닥은 책으로 뒤덮였어요.

The trouble was, Kipper liked every book, and he simply couldn't decide which ones to take home.

문제는, 키퍼가 그 모든 책을 좋아해서 어떤 것을 집으로 가져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would happened if everyone did what Kipper did?

만약 모든 아이가 키퍼처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Why is it sometimes hard to choose a book?

왜 때때로 책을 고르는 것이 힘들지?

Can you remember the name of a book you have chosen from a library, or book corner?

도서관이나 책방에서 빌렸던 책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겠니?

<단어 알기>

Pile: 쌓아 올린 더미, 산더미

Look at: 바라보다, 자세히 보다

Spread out: 펴다, 펼치다

Page 6-7

When Dad had chosen a book for himself and a book for Mum, he told Kipper that it was almost time to go.

아빠가 자신이 읽을 책과 엄마가 읽을 책들 고른 뒤, 그는 키퍼에게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Decide quickly, Kipper,' he said looking at all the books Kipper had spread out over the floor, 'and make sure you put the rest of the books back on the right shelves.'

'빨리 골라라, 키퍼. 그리고 남은 책들은 제자리에 올려놓아야 한단다.' 아빠는 키퍼가 바닥에 펼쳐놓은

책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The trouble was, Kipper couldn't decide.

문제는, 키퍼가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I want that one, and that one,' he said.

'난 저것도 좋고, 또 저것도 좋아.' 그는 말했어요.

'These two. That one over there... oh, and I want this one, especially.

'이 두 권을 가져갈까? 저기에 있는 것도 좋은데...오, 이것도 정말 좋아.

And I think I want this little one. Yes.

그리고 이 작은 책도 좋아.

And I want the one I've just put down.

또 내가 방금 내려놓은 이것도 좋아.

Oh and the one I've just picked up....'

오, 방금 집어 들은 이 책도 가져가고 싶은데....'

In the end he decided to take ALL the books he had looked at that morning.

마침내 그는 그날 아침에 봤던 모든 책을 가져가기로 했어요.

And that meant he had seventeen books with him when he staggered up to the librarian's counter.

그는 17권이나 되는 책을 가지고 비틀거리며 책 대여하는 곳으로 갔어요.

'Goodness me!' said the librarian. 'I'm afraid you can't take seventeen books home, all at one go. Children are only allowed to have three at a time.'

'저런! 내가 보기엔 넌 17권을 한꺼번에 집으로 가져가지 못할 것 같구나. 아이들은 한번에 3권씩 빌려 갈 수 있단다.'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y can't everyone take seventeen books out at one go?

왜 한꺼번에 17권을 가져갈 수 없을까?

What will Kipper and Dad have to do?

키퍼와 아빠는 뭘 해야 할까?

<단어 알기>

Seventeen: 17의, 17개의

Three: 셋의, 세 개의

Page 8

In the end, Dad helped Kipper to choose three books, but that wasn't easy, because Kipper got the pile down to four, and then couldn't decide which one of the four to put back.

마침내, 아빠는 키퍼가 3권의 책만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키퍼는 4권을 쌓아놓고, 그 중 어떤 것을 돌려놔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Well,' said Dad. 'Normally I can take out six books.

'음... 보통 내가 6권을 빌려 갈 수 있지.

I've only got two, so I'll take out one for you on my ticket. And that way you can have four books this time.

'내가 두 권을 빌렸으니까, 그 책 중 내가 한 권을 빌린다면, 그러면 넌 이번에 4권을 볼 수 있는 거다.

And that way we can get home in time for dinner!'

그리고 우리는 저녁 시간에 맞춰 집으로 갈 수가 있지!' 아빠는 말했어요.

So that's what Dad did, and Kipper carried the four books home.

아빠가 그렇게 했고, 키퍼는 4권의 책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답니다.

On the way, Kipper said, 'Dad, if you only got two books out, and you could have had six. That means I could have had. um...'

집에 오는 길에 키퍼가 말했어요. '아빠, 아빠가 두 권을 빌린다면... 그러면... 아빠는 6권을 더 빌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나는... 몇 권을 빌릴 수 있는 것이었냐 면..음..'

'Yes,' said Dad, 'four extra books, not just one extra.

'그래, 한 권이 아니라 4권을 더 빌릴 수 있지.

Don't even think it, Kipper.

'너무 무리하지 마라, 키퍼야.

The three books you've got there and one extra, are quite enough.

네가 빌린 3권이랑, 또 한 권, 그거면 충분하단다.

After all, you can come back in a day or two and change them.'

결국, 넌 하루 이틀 안에 그곳에 가서 다시 바꿔 읽으면 되잖아.' 아빠가 말했어요.

'Oh, can I?' said Kipper.

'오, 내가 그럴 수 있나요?'

'I'd forgotten that!'

'그걸 잊고 있었어!' 키퍼가 말했답니다.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How many books did Kipper borrow? Do you think he had enough?

키퍼는 몇 권을 빌렸죠?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How often do you go to the library?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도서관에 가죠?

How many books do you think kipper will take out next time he goes to the library?

키퍼가 다음에 도서관을 가면 책을 몇 권 빌려 올 거라고 생각해요?

<단어 알기>

Enough: 충분한, 필요한

Extra: 여분의

Change: 바꾸다, 교환하다.